

## 進化上 個我的 地位

(單子的 個我主義)(二)

韓稚振

### 二, 個我的 位置

以上の 論述을 읽었스면 生命의 進化上 個我的 位置가 如何한것인지 斷言할 수 있겠다. 個我란 宇宙의 中心點이 되었다. 實히 充實點이 되었다. 各 個我的 立地는 하나인 것과 如히 宇宙의 中心도 하나이오. 實히 宇宙도 하나이다. 卽 參宇宙萬象을 觀察할 時에 自己를 比準하여야된 自己의 宇宙도 同一한 自己와 비슷한 個我들의 存在를 그 內에 認定하여준다. 이래서 그 個我들도 自己와 가티 그들의 各 自己立地에서 宇宙를 觀察하는 結果 各各 自己의 宇宙를 가지고 잇스리라는 것을 認定하게 된다. 이런 故로써 各 個我是 다른 個我的 宇宙內에 屬하여 잇게 된다. 그러나 各 個我是 다른데 屬함이 업시 獨立的이다. 다시 말하면 各 個我是 奴隸도 되고, 獨立的도 된다. 此兩種 特性은 個我內에서 一致하여 가지고 잇다. 이래서 宇宙의 中心點을 어대서든지 定할 수 잇스되 한번 定하였스면, 다시 變動하기까지 그것은 絕對的의 하나가 된다. 즉 一個我에 限한 立地는 그 個我에게 絕對가 된다. 다른 個我が 取할 수 업는 것이다.

個我的 이러한 位置를 例하여 示하면 急流하는 江口中의 三角孤島와 恰似하다. 左右便에 썩가나리는 急流를 對抗하고, 썩 아니라 그 對抗으로써 自己를 充實케하며 存在케하는 것이다.

凡存在는 이三角洲의 島와 갓다. 速한 急勢를 對抗함으로 因해서 江中에 島가 存在하게 되는 것과 가티 個我也 全 生命活動의 風波즉 反抗의 結果로된 最上 激烈點인 것이다.

競爭의 焦點이 個我이다. 個我是 純力뿐이다. 自律的 活動의 緊張點이다. 危險點이다. 山脈으로 말하면 高峯들이 個我인 것이다. 山脈이 峯업시는 存在치 못 하는 것과 가티 生命의 存在도 個我的으로만 存在한다. 存在 그것부터가 個我的을 豫想한 것이다. 어셔한 活動이든지 이最高峯의 境遇에서만 可能

하다. 陽電과 陰電兩者가 接近하는 그 非常的 境遇에서만 光이 生하는것과 가티 生命이란 力도 反對物을 接할 時에 비릇 오산다는 活動이 發하는 것이다. 이 活動이 個我的 全體이다. 이래서 산다는 것은 自我的 競爭이다. 競爭은 非常的이오. 動的이다. 急進的 革命的이다. 攻勢的 奮鬪이다. 個我的 位置는 이리케 非常的이오. 挑戰的이다. 集中的이다. 進化의 全徑路가 이리케 集中的이기 때문에, 可能도 하고 繼續하는 것이다. 이 集中的은 벌써 個體化이니, 이럼으로 個體化아닌 進化가 업고 進化아닌 個體가 업는 것이다. 이 個體와 進化自體와의 關係는 圓의 中心點과 徑線과의 關係와 如하다. 그리고 中心點업는 半徑線이 업고, 半徑線업는 中心點이 업는 것이다. 兩者가 圓이란 一體에 包含하여 잇는 不可分의 一인것이다. 둘이면서도 갈라 볼 수 업는 하나이다. 進化와 個我와의 關係가 이리하다.

以上과 如히 生命이 進化法에 依하여 個體化한다 하는 말은 生命이 外界한다 하는 뜻이오. 곳 內的 生命自體를 不定하는셈이다. 그러치마는 이 外界化함으로써 돌리어 生命은 自己를 勝하는것이다. 이것은 實로 深遠한 眞理를 示함이다. 生命은 自己를 否認하는데서 勝利를 얻는다. 實로 否認하는것부터가 認定하는것이 된다. 認定에서 不認定에 다시 거긔서 認定을 얻는다. 生命의 活動은 認定 不認定의 奮鬪에서만 可能하다. 이것이 生命은 非常的이오. 奮鬪的이라 하는 理由이다.

### 三, 個我的 性質

個我是 進化의 集中的이오. 짧하 成就點이라 하는 대서 個我的 性質을 解得할 수 있다. 集中이란 緊張을 意味한 것이니, 이를터이면 씩씩하게 空氣를 吹入한 球와 如히 機會만 잇스면 터져나올 作定이다. 그런데 生命의 活動은 이리케 터져 나오는 現象을 뜻 함이다. 空球는 氣를 吹入한 比例에 依하여 그 爆發의 勢力及長短을 判定할 수 잇스되, 自發的으로 恒常速度를 加하여 爆發하나니 이석이 곳 創造的 意味인것이다. 이래서 生命이 이미 創造的 進化力인 故로 外界에서 注入하는 要素는 업다 한다. 獨立自在하는것이 生命인 것이다. 萬一 外界의 影響을 바드면, 그만침 그는 自律的 生命이 아니오. 他律的 死的 物質이다.

우리 普通人은 凡個我が 外界의 影響을 受하는것을 平常目睹하게 된다 이리하여 어떤 이는 極端으로 主張하되 個我是 純周圍 環境의 產物이라고 까지 하게 되었다.

사람은 除外하고 一般植物이 長成하는것을 觀察하면 外界의 影響을 짧하서 그 草木의 外形을 決定하게 되는 事實을 볼 수 잇스니, 假令 무르무룩 發芽하는 草葉의 上에다가 石片을 눌러 노흐면 그 芽는 別數없시 그 石底에서

屈曲하여 發生하는것 가튼 것은 우리가 日常 볼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을 보고는 우리는 主張하되 外界의 影響이 植物의 그 芽로 하여금 曲折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現狀을 가만히 思考하여보면, 그 芽의 曲折이 決斷코 外界의 影響을 바다 그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그 芽의 屈折에 對하여서 數條의 質問이 發하나니, 첫째 어찌케 外界의 影響이 芽를 曲케 할까 하는 것이 오둘재 萬一 芽가 眞正外界 때문에 曲折이 되었다 하면 그 曲折이 차라리 엄서야 할 것이 어늘 事實은 不然하니 그 理由는 何일까. 第一 問疑로 말하면 甚히 不可思議的이다. 어찌케 外界가 芽의 發生을 左右하게 하나 무삼 影響物이 그 芽의 裡面으로 入하여 芽를 曲折케하였나? 무삼 神가튼것이 石片에서부터 芽의 裡面에 突入하여 曲折의 結果를 産하였나 이러한 質問은 實로 深奧하다. 現下우리의 智識으로는 說明할 수도 없으며, 언제든지 무슨 外界의 影響으로써 芽의 曲折을 說明하려는 見地로서는 何時에든지 對答할 수 없을 것이다.